

1. 百家爭鳴(백가쟁명)

① 백가쟁명(百家爭鳴)

-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올다.
- 다양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침

② 지금까지 『논어』 관련 서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?

- 하야시 다이스케(林泰輔, 1854~1922) 『논어연보(論語年譜)』
 - 역대 논어 주석서가 3천여 종이라고 소개
- 정수덕(程樹德, 1877-1944)의 『논어집석(論語集釋)』
 - 600여종의 『논어』 관련 도서 인용
- 인터넷 서점의 인문학 파트의 관련 서적만 466건
- 과거 2008년 『논어』 관련 서적 250여종
- 『논어』 관련 서적 300종 이상이 우리나라에 출판

③ 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『논어』

- 20대, 30대, 40대, 50대의 『논어』가 다름
- 『논어』가 우리에게 정해진 답안을 주는 것이 아님
-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 고전이기에 때문
- 『논어』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문제가 중요
-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
-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『논어』를 통해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

2. 『논어』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

① 수주대토(守株待兔)

- 『한비자(韓非子)』의 「오두편(五蠹篇)」에 나오는 고사
- “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리다.”



송나라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.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, 토끼가 달려가다 여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.

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쟁기를 내려놓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다시 토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. 그러나 토끼는 다시 얻지 못하고 그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.

『한비자(韓非子)』, 「오두편(五蠹篇)」

-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음
- ‘한 번 이루어진 우연을 다시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행동’을 가리키는 데에 쓰임
- 그러나 이 구절은 공자, 맹자를 비판한 것
 - 선왕시대에 통하던 정치를 가지고 현재의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위 이야기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

2. 『논어』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

① 수주대토(守株待兔)

- 춘추시대(春秋時代) 후기를 살았던 공자
- 선왕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경지로 요순(堯舜) 임금을 언급한 것
 - ➔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집이고,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라는 것임
- 결국 공자의 주장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바뀐 환경에서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고 비판한 것
-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한비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와 다르며,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와는 큰 차이가 있음
- ‘수주대토’라는 성어는 현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공자, 맹자를 언급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함
- 공자와 『논어』를 현대에 다시 읽는다는 것이 현대를 통해 공자를 다시 읽는 것이기에, 그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가능함
- 시대에 맞는 『논어』 읽기의 필요성 강조

2. 『논어』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

① 대우탄금(對牛彈琴)

- 소를 앞에 두고 피아노를 치다.
- 쇠 귀에 경 읽기

“對牛彈琴!”

‘아, 소를 앞에 두고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니.’

“對!牛彈琴”

‘맞아요. 소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.’

- 끊어 읽기 하나로 생긴 엄청난 변화
-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관해 이야기, 때로는 정반대의 입장
- 『논어』, 『맹자』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할 것
-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전
 - 원문을 어떻게 끊어 읽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
 - 때로는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뜻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
-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독해법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됨
- 반드시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해야 함

2. 『논어』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

① 진신서, 즉불여무서(盡信書, 則不如無書)

- 서경의 말을 모두 믿을 바에는 차라리 서경이 없는 편이 낫다.

서경의 말을 모두 믿을 바에는 차라리 서경이 없는 편이 낫다.

[진신서, 즉불여무서.]
 [盡信書, 則不如無書.]

나는 무성편(武成篇)의 구절 중에서 서너 구절을 취할 뿐이다. 인자한 사람은 천하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, 지극히 인자한 사람이 지극히 인자하지 못한 사람을 정벌하였는데, 어떻게 피가 절굿공이를 띄울 정도까지 되었겠는가?

『맹자(孟子)』, 「진심장하(盡心章下)」

- 『서경』 「무성편」
 - 주나라 무왕이 상(商)나라 주(紂) 임금을 정벌하여 큰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해 기록한 것
- 혈류표저(血流漂杵):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다니다.
- 맹자는 주나라 무왕처럼 어진 군주가 포악무도한 주 임금을 정벌하는데, 이처럼 많은 살육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면서 이 구절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
- 고전을 대하는 맹자의 태도를 밝힌 구절
 - 고전을 읽을 때에 무조건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치에 어긋난다면 글자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
 - 물론 그 판단의 근거가 자신만의 억지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

3. 군자에서 리더로

①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?

- 『논어』는 리더에게 하는 이야기
-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?
- 비전
 - 대동사회(大同社會)
 - 화이부동(和而不同)
- 소통
 - 사랑
 - 변화를 인정
 - 경청
- 실행력
 - 관직생활의 실천력
 - 15년의 주유천하
- 공자의 사상과 행동이 그 자체로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줌

3. 군자에서 리더로

① 수기치인(修己治人)

- 유가는 학문의 목적에서 두 가지를 중시함
- 수기(修己)
 - 자기 자신의 수양을 중시하는 학문
- 치인(治人)
 - 리더로서 타인을 다스리는 학문
 - 경세(經世, 세상을 경영함)와 치용(致用, 구체적인 쓰임에 도움이 되어야 함)을 포함

② 경세치용(經世致用)

- 공자와 『논어』의 학습에는 경세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
-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대안제시, 그리고 국가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써의 인문학이라는 필요성에 대한 응답임

③ 경연(經筵)

- 경을 논의하는 자리,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의 경전에 대한 토론
- 경연은 유가의 경전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당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를 두고 국왕과 신하가 치열하게 논의한 흔적

조선 세종과 영,정조 때 활발했음

눈 앞에 직면한 문제를 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야기

직접 언급 시 생기는 위험부담, 감정적 논쟁을 피함

특정 사안을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짐